

【논문】

1920년 제국주의 일본군의 간도침략과 한인 대학살 — 통제와 은폐 —*

김 주 용**

Ⅰ 차 례 Ⅰ

- I. 머리말
- II. 기획된 대학살의 전주곡, 훈춘사건
- III. 군용통신 시스템 구축과 학살의 공간 확대
- IV. 대학살의 과정과 실상
- V. 맺음말 : 경신참변은 제노사이드이다

국문초록

20세기 인류는 전쟁을 치르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절멸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무기의 발달과 함께 더 강하게 진행되었다. 학살 즉 제노사이드는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극복해야 할 역사적 대상이다. 이 글은 1920년 10월부터 간도지역에서 자행되었던 제국주의 일본군의 한인 학살의 현상과 실태를 규명하려고 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간도지역에 출병했던 일본군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 한인들을 학살했던 참혹한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간도지역 한인 구성원들을 살해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 박해를 자행하였다. 국제법적인 구속력과 규정력의 기준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때 '간도 제노사이드'로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 여겨진다.

주제어: 간도, 제노사이드, 제국주의 일본, 청산리전투, 조선인경찰

* 이 글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2020년 11월 25일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I. 머리말

역사적 시각에서 국가, 전쟁, 제노사이드는 근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더 강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있어 왔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그 차원이 달라졌다. 전쟁의 형태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의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국가를 동원해 타민족 혹은 타국가의 구성원을 집단학살하며, 이를 전에 없던 ‘애국’이라고 정당화하곤 했다. 인류 역사상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사례 가운데 대부분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를 실현할 수 있는 문명의 도구들이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제노사이드는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참전 국가들이 국민들을 ‘총동원’했던 제1차 세계대전은 그 과정에서 군인들은 물론이며 일반인과 전투원, 비전투원에게 대량학살의 의식과 실현수단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체 희생자의 60%가 민간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 가운데 민간인 비율이 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애국심에 포장된 ‘도덕적 잔악상’은 절멸 전쟁의 양상을 강하게 띠어 갔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전쟁 또는 준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이 80%를 넘어섰다. 이 글에서 다룰 경신참변(간도참변)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¹⁾

철기 이범석은 그의 자서전 우동불에서 청산리 전투의 승리와 ‘경신참변’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어쨌든 황군은 청산리 전쟁에서 치욕의 패전을 당하고 맨주먹의 교포를 공격할 때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적군은 랴오닝, 지린 두성에서 대도살운동을 전개하여 무고한 한국 농민 3만여 명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혈채(血債)는 면면부단(綿綿不絕)

1) 일반농민 피해가 직업적 독립군보다 최소한 20배 이상 많았다. 예컨대 청산리 전투에서 희생된 독립군의 숫자가 약 200여 명인데 반해 일반 이주민은 약 4천명을 헤아리고 있다. 한인 학살에 동원된 일본군에게 학살 대상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열등하고 차별적인 존재로서 한인을 타자화하여 학살을 자행하였다. 고유한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한인에 대한 학살을 제노사이드의 개념에 범주화시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綿不斷)이 이어간다. 청산리 산천 초목은 오늘도 예나 다름 없을 것이다. 다만 1천 여 명의 시체가 쌓여 있던 산림 공지 부근에는 쓸쓸하고 차디찬 초흔비가 홀로 서 있을 뿐이다. 날마다 해마다 황혼의 붉은 햇살이 그 검푸른 글자국을 어루만져 주고 있을 것이다.²⁾

경신참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 측 자료가 거의 없다. 특히 독립군 지도자들의 회고나 일기류에 나타난 경신참변 실태는 너무 소략하여 실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³⁾

이처럼 경신참변은 한인 항일세력 말살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국주의 일본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군사작전의 결과였다. 그것은 또 다른 이름 즉, 제노사이드였다. 제노사이드란, 1948년 UN이 채택한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협정]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가적, 종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을 죽이는 행위, 집단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집단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집단의 생활 조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집단 내의 출생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 한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에 이주시키는 행위를 말한다.⁴⁾

사실 1920년 10월부터 제국주의 일본군의 서간도, 북간도 지역 침략으로 이주한 인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용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이른바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으로 불리고 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연변지역 학자들이 선구적으로 진행해 왔다.⁶⁾ 조원기는 훈춘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

2) 이범석, 『우동불』, 사상사, 1971, 85쪽.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龍淵金鼎奎日記』, 1994. 최근 필자는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사 26기, 27기생에 관심을 가지면서 글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경술국치 이후 일본군의 크고 작은 작전에 투입되었다. 예컨대 26기생 지청천 등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며, 27기 이종혁 등은 시베리아 출병 때 참전하였다. 1920년 이른바 ‘간도토벌’ 때 참전한 일본 육사 출신 한인 장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그 당시 일본군은 작전을 펼치면서 국내 경찰들 가운데 한인들을 선발하여 투입하였으며, 그 공로를 일제로부터 인정받은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4) 이 글에서는 제노사이드 개념 규정을 강성현, 『제노사이드』, 『역사연구』 18, 역사학연구소, 2008의 글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5) 제국주의 일본의 ‘간도출병’과 경신참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춘선, 「경신참변연구」,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박민영, 「경신참변의 분석 연구」, 『국사관논총』 103, 2003;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정예지, 「庚申慘變기 조선인 “귀순”문제 연구—북간도를 중심으로—」, 『사림』 38, 수선사학회, 2011; 김연옥, 「일본군의 ‘간도출병’ 전략과 실태」, 『일본역사연구』 50, 일본사학회, 2019.

건들이 이미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군부에서 치밀하게 진행되었음을 분석하였다.⁷⁾ 또한 간도출병사 원전을 번역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 간도침략의 실태를 밝힌 연구⁸⁾, 학살의 잔악성과 이주 한인의 ‘귀순’ 관계를 연동해서 규명한 연구⁹⁾, 화룡과 왕청 등에 거주하고 있던 대종교인들의 참상을 다룬 연구¹⁰⁾, 중화민국 시기 중요한 慘案의 하나로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¹¹⁾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경신참변(간도참변)을 제국주의 일본군의 대학살, 즉 제노사이드로 규정 또는 正名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주의 시대 정규군을 동원한 민간인 대학살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일제 간도침략군은 그들의 출병 목적이 한국독립군 ‘토벌’이라고 했지만 정작 가장 많은 사망자는 일반 이주 농민들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참변’ 또는 ‘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제노사이드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참변’과 ‘참안’은 행위자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참혹함’에 방점을 둔 용어이다. 반면 제노사이드는 행위자의 잔인성에 머물지 않고 행위 주체 의도,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 즉 학살의 규정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을 제노사이드의 범주로 보아야만 이 사건의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 측 자료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민간인들을 군사행동으로 학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훈춘사건을 보도한 중국 언론의 기사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간도지역에서 일본군이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학살의 공간적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4장은 학살의 과정과 실상을 육군성 자료와 간도출병사를 통해서 밝히려 했다. 일제는 의도된 절멸 전쟁이 아니라고 강변하였지만 1920년 10월 말부터 3개월간 일제가 자행한 인간 살육 광풍은 서간도, 북간도 지역¹²⁾ 이주 한인사회 공동체를 위협하였던 제노사이드였다. 국제사회의 법적 규정력

6) 김춘선, 「경신참변연구」,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7)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8) 김연옥, 「일본군의 ‘간도출병’ 전략과 실태」, 『일본역사연구』 50, 일본사학회, 2019.

9) 정예지, 「庚申慘變기 조선인 “귀순”문제 연구—북간도를 중심으로—」, 『사림』 38, 수선사학회, 2011. 간도출병 이후 귀순문제는 지식인이자 역사학자였던 김정규가 경신참변 이후 어떠한 역사적 저술과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을 제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실, 「용연 김정규의 저술과 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참조.

10) 신운용, 「경신참변과 대종교」, 『단군학연구』 37, 2017.

11) 許壽童, 「關於“間島慘變”研究與紀念問題」, 『만주연구』 10, 2010. 필자는 이 글에서 간도참변 또는 경신참변의 용어를 연변경신참변으로 교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범위에서 간도지역 한인 제노사이드를 다루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 기획된 대학살의 전주곡, 훈춘사건

1919년 3·1운동의 열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때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는 조선의 젊은 장교와 함께 한반도를 순시하였다.¹³⁾ 그는 순시 후 만주지역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1910년대 서, 북간도의 민족교육기관에서 인재양성을 통해 길러진 독립군을 토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일본의 정보력은 외무성 영사경찰 및 정보원, 관동군 헌병 밀정,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경찰 등을 통해 축적된 것들이다. 간도정세에 대한 정보를 취하면서 우쓰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는 1919년 9월 12일 [對不逞鮮人作戰에 관한 訓令(朝參第906)]을 발표하였으며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잔멸적 타격’을 가하면서 필요시 중국영토인 간도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킬 방침을 세웠다. 국경지대에서 병력증강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 우쓰노미야는 도쿄에서 다나가 기이치(田中義一) 육군성 수뇌부와 협의하여 국경을 넘어 독립군 단체를 토벌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¹⁴⁾

1920년 10월, 추위와 함께 찾아온 일본군들의 무자비한 탄압은 3·1운동 이후 불길과도 같이 번진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열기를 무참하게 꺾어 놓았다. 특히 간도지역 독립군에 대한 ‘토벌계획’은 일제가 봉천군별인 장작림과의 회의를 통하여 골격을 세웠다. 192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관, 관동군사령부, 시베리아파견군, 봉천총영사 등이 3회에 걸쳐 봉천회의를 개최하고 항일무장단체에 대한 탄압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월 경성회의를 거쳐 일본과 중국의 ‘합동토벌’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¹⁵⁾ 다음달 9월부터 마적단의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10월 2일 대규모 마적단이 훈춘일본영사관을 습격하였다.

12) 서간도 지역 학살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현재 김립성 통화현 부강향 배달촌에는 1920년 10월에 학살당한 7위의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간도지역 간도침략군의 학살도 그 규모와 실상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중국 언론 대공보에도 서간도 지역 한인 학살 기사들이 게재되었다(『대공보』 1921년 1월 6일, 일본은 鳳城에서 한인을 잔인하게 죽이다).

13)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 編, 『陸軍大將宇都宮太郎 日記』 3, 岩波書店, 2007, 45쪽.

14)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 編, 위의 책 3, 44쪽.

15) 김춘선, 앞의 글, 142~145쪽.

이 때 일제는 마적단에 100여 명의 한인(조선인)이 있었다고 선전하였다. 그들이 일컫는 조선인이란 이른바 ‘不逞鮮人’이었다. 하지만 1921년 5월 북경주재 미국공사관 무관과의 간담회에서 한인은 1~2명이었다고 말했다.¹⁶⁾ 곧이어 훈춘 일본영사관이 파괴되고 독립군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중국 長沙 『大公報』 기사가 보도되었다.¹⁷⁾ 『대공보』에서는 일제가 간도에 출병하는 명분 가운데 하나를 ‘현지 주민의 요청’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간도 정보에 의하면 천보산 방면에는 반역적인 생각을 가진 조선인의 횡포가 심하고 다시 습격당해서 민심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했다. 중국측은 수비대와 경찰력이 부족해서 결국 토벌할 힘이 없었다. 일본 거주민 가운데 지방을 향해 피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산회사 대표가 일본에게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¹⁸⁾

『대공보』가 정보를 받아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도정보 제공자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전날 동경전보를 인용하여 일본의 군대 출병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¹⁹⁾ 그 내용은 1920년 10월 7일 새벽녘에 회령을 출발하여 그날 밤 용정촌에 출병 군대가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였다.²⁰⁾

간도지역에 군대를 출병하기 위해 훈춘사건을 조작하였다면, ‘군대출병’으로 한 인사회를 통제하려 했던 표본은 일본사령부의 포고문이었다. 1920년 10월 18일, 일본군 사령부 명의를 포고문은 간대출병이 훈춘사건과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선전하는데 주요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대공보』에는 훈춘지역에 게재된 포고문의 내용을 실으면서 일본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영토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였다. 다음은 포고문의 내용이다.

무장한 한당과 경계 밖의 마적은 훈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여 불태우고 훈춘 일

16) 김정주, 『朝鮮統治史料』 2, 448~451쪽 참조. 「(秘)대정10년 1월 7일조특보 제1호, 미국 무관의 행동에 관하여(秘)미국 무관의 행동」.

17) 『大公報』 1920년 10월 10일, 「훈춘 일본영사관이 훼손된 진상, 조선인들의 복수」.

18) 『大公報』 1920년 10월 17일자, 「輝春事後之雜訊」.

19) 『大公報』 1920년 10월 16일자, 「日本紛紛進兵」.

20) 10월 6일 오전에 회령에서 용정으로 조선군 제19사단 2개 중대가 이동하였다.

대의 일본교민을 도살했다. 또한 감히 일본 영토(일본영사관)에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것이며 일본의 주권을 침범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지키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국민의 권리를 절대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우리의 목적은 중국 정부 및 군대와 연합하여 진행하고 서로 도우면서 중국 전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다(밑줄 인용자).²¹⁾

간도출병의 원인을 훈춘사건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일본이 줄기차게 선전 하였던 것인데 위 기사와 같이 그 군대 파견 목적이 중국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북경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국주의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서.북간도 각 지방에 주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점령군으로 행세하면서 중국 관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이주 한인을 조사하고 단속하였다.²²⁾ 일제는 한발 더 나아가 조선군사령관 명의로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게시하여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훈춘과 간도 일대의 반역적인 조선인과 마적, 기타 동맹을 맺은 비적들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훈춘 영사관을 습격하여 잔혹하게 불태우고 제국영토의 무장 침입을 기도했다. 제국은 출병시켜 거주민의 평안을 보장하고 비적을 통벌하여 제국 영토의 치안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것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결코 그 뜻이 없더라도 중국의 주권을 엄격히 존중하고 준수하며 일반 백성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중국 관병 및 군부대와의 협조를 유지하여 뜻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우리 거주민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군사행동에도 제약을 받아 우리 군은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한 것이니 중국 관민은 이 뜻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우리 군은 중국 관병과 함께 마적을 소탕하기를 원한다. 마적을 소탕하여 중국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니 진심을 다해 우리 군을 돕기 바란다(밑줄 인용자).²³⁾

위의 포고문에 대해서 『대공보』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간파했으며, 북경 거주 외국인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군의 이번 침략이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

21) 『大公報』 1920년 11월 1일자, 「日本増兵不已」.

22) 『大公報』 1920년 10월 23일자, 「日本蹂躪吉邊之近迅」. 귀순자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정예지, 양익 글, 41~48쪽 참조.

23) 『大公報』 1920년 10월 27일자, 「日本在延邊之橫行」.

각심을 일깨웠다.²⁴⁾ 이 시점부터 『대공보』는 훈춘사건과 간도침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도 일대를 세계 여러 나라의 주재원이 상주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방도시로 바꾸고, 둘째,吉會철도(길림과 회령간)를 시급히 개통하여 그 관리권을 중국이 장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전자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길회철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으로써 일본 세력의 진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²⁵⁾

하지만 중국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 군대는 간도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식하는 듯 마음대로 행동했다. 1920년 11월 1일자 보도에는 우수리스크에서 파견된 일본군 보병부대가 훈춘일대를 정찰하고 또 새로운 부대가 증강되고 있다고 했다.²⁶⁾ 국경 부근인 도문의 凉水泉子 부근에 집중적으로 군대가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비행기 부대가 주둔하였다고 보도되었다.²⁷⁾ 일본이 간도지역 중국측 전화국 및 우체국을 점령하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중국 직원들에게도 비인간적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²⁸⁾ 한국독립군에 대한 일본군의 탄압과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본 세력의 치밀한 작전을 『대공보』는 중국의 국력과 연관하여 보도했다.²⁹⁾ 일본군은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철저하게 검사를 했고, 중국 관병과의 우호관계 증진도 초기와는 달리 무시했다. 『대공보』는 이러한 일본군대의 행동이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만국공법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경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본의 강경한 자세로 외교회담의 성과는 미미했다. 결국 훈춘사건은 1919년 3·1운동의 열기 속에서 서,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타락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24) 『大公報』 1920년 10월 27일자, 「日本在延邊之橫行」.

25) 『大公報』 1920년 10월 27일자, 「日本在延邊之橫行」.

26) 『大公報』 1920년 11월 1일자, 「日本增兵不已」.

27) 『大公報』 1920년 10월 28일자, 「吉邊日軍益形橫暴」.

28) 『大公報』 1920년 10월 28일자, 「吉邊日軍益形橫暴」.

29) 『大公報』 1920년 11월 5일자, 「中日會剿胡匪韓黨之真相」.

Ⅲ. 군용통신 시스템 구축과 학살의 공간 확대

1919년 3·1운동은 제국주의 일본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가 만주지역 한국독립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한 것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다음해 10월 제국주의 일본이 북간도와 서간도에 군대를 파견한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한 친일 세력 확장과 독립군 세력의 제거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간도에 파견된 일본군은 조선주둔의 제19사단 예하부대가 주축이 되었다.³⁰⁾ 일제는 이미 북간도 한인사회에 대한 ‘토벌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이는 「間島地方不逞鮮人剿討計劃」으로 구체화되었다.³¹⁾ 이를 근거로 일본군은 간도지역 한인사회를 철저히 유린하였으며, 이러한 잔혹 행위는 한인사회를 통제하는 채찍으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용정에 설치된 간도일본총영사관은 한인사회와 독립운동단체 및 한인사회의 운명을 좌우하였다. 특히 일본군과 연결하여 독립운동가의 인적사항과 동향, 단체의 병력과 장비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보수집에 적극 가담하였다.³²⁾ 그렇다면 일제가 ‘간도출병’을 단행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기동력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통신’이었다.³³⁾

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은 제국주의 일본과 張作霖과의 한인 독립군 ‘토벌’ 협동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920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진행된 張作霖과 일제와의 협상 과정에서 독립군 토벌의 범위를 간도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흑룡강성 東寧까지 포함하려고 했다. 즉 작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확보가 우선이었던 셈이다.³⁴⁾

30)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2, 40~80쪽. 일제는 3·1운동 과정에서 본국에 있는 군대를 한반도로 파송하였다. 3·1운동 이후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20사단 사령부는 일본 내 17사단을 기반으로 새로 편성하였다. 19사단은 1919년 4월 1일 예하의 제39여단을 제20사단으로 복귀시켰으며 이로 인해 1개 보병여단이 부족하였다. 그해 11월부터 제19사단 인원보충이 추진되었으며, 다음 해 4월에는 보병 제75, 76연대를 새로 편성하여 사단 편제를 완료하였다(김상태, 「3·1운동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탄압-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29, 2019, 317쪽).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간도침략’을 수행하게 된 것은 우쓰노미야의 3·1운동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치밀한 군사전략의 하나였다.

31) 金春善, 앞의 글, 146쪽.

32) 金泰國,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研究』, 國民大 博士學位論文, 2002, 57쪽.

33) 김주용,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선인, 2008, 72~79쪽 참조. 통신관련 자료는 조선군사령부에서 작성한 「간도출병사」 보다는 1920년 당시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가 자세하기 때문에 이를 많이 활용하였다.

제국주의 일본은 간도출병을 독립군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통신시설 확충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³⁵⁾ 게다가 중국 관헌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 역시 전신선 가설을 촉진시켰다.³⁶⁾ 육군성에서는 조선총독부에 의뢰하여 慶源과 訓戎간 체신 전신주에 군용전신선을 添設하였다. 이는 훈춘과 가까운 지역을 먼저 통신으로 연결하면서 원거리에 대한 정보의 가시적 확보를 위함이었다.³⁷⁾ 이를 위해 육군성은 시베리아 사건 때 特務³⁸⁾로 활동했던 청진우체국 소속 육군통신 기사 2명을 임시 훈용수비대에 파견하여 통신사무를 맡겼다.³⁹⁾ 또한 10월 4일 오후에 통신반을 훈춘에 파견하였다.⁴⁰⁾ 규모는 장교를 포함해서 35명이었다. 특히 간도일본총영사관 사카이(堺) 영사의 출병요청에 따라 전화반과 위생반이 10월 7일 함경북도 회령을 출발하여 용정으로 향했다. 10월 9일 제19사단 공병 제19대대는 국자가, 두도구의 통신망 가설 작업에 투입되었다.⁴¹⁾ 하지만 일본군의 통신망 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곳곳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 가설 통신선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⁴²⁾

이후 육군성에는 용산 병기창에서 통신기자재를 보급 받아 이를 간도지역 전신선 가설에 충당하였다. 1920년 10월 11일 일본 육군성 군사과에서는 소위 ‘不逞鮮人’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통신원 파견을 요청하였다.⁴³⁾ 이에 따라 1920년 10월 14일 군참모 天野(아마노)소좌는 육군성에서 세부사항을 지시받아 본격적으로 전신선 가설에 착수하였다.⁴⁴⁾ 일제는 이를 크게 4기로 나누어 작업에 착수하였고 군용통신망의 범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훈춘사건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경원과 훈춘간 전신선을 신설하면서 회령과 용정, 국자가 및 종성과 용정간 전신선을 침설 또는 신설하였다. 특히 용정과 두도구 사이에는 전화 복선을 신설하고자 했다. 두 번째 구간은 회령과 청진 및 나남

34) 김연옥 옮김, 『간도출병사』, 경인출판사, 2019, 11쪽.

35)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2 韓國史料研究所, 1970, 63쪽.

36)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3(영인본; 고려서림, 1989), 540쪽.

37) 김연옥 옮김, 『간도출병사』, 74쪽.

38) ‘특무’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밀정, 간첩, 스파이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9) 金正柱, 앞의 책, 64쪽. 육군성은 19사단에 지시하여 총독부에 신설 통신망 및 건축소재, 통신원 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40) 김정주, 『朝鮮統治史料』 2, 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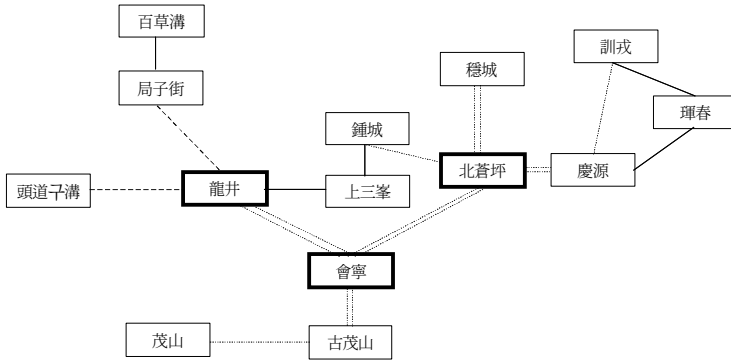
41) 김정주, 위의 책, 361쪽.

42) 김정주, 위의 책, 385쪽.

43)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 上, 「間島事件ニ關スル朝鮮軍參謀指示事項」(1920. 10.11).

44) 김연옥 옮김, 앞의 책, 74쪽.

간을 연결하는 전신선을 침설하고, 세 번째 구간은 회령과 북창평, 경원 및 북창평과 온성의 전신선을 침설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로는 무산지역과 간도지역을 연결하는 선이었다. 이러한 군용 통신망을 그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신국선 침설 복선 *-- 체신국선 단선 * - 신설 군용선 *-- 중국 전주에 침설

<그림-1> 군용통신망회선도(1921.1)

한반도 이주민의 주된 이주루트였던 회령과 용정, 북창평에는 전화 교환소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통신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령, 경원, 훈춘, 용정, 국자가에는 육군전신소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일제가 신속하게 통신망을 설치하였던 까닭은 당시 일본군 수뇌부에서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의 안위가 통신시설과 직결된다고 인식할 정도로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기재는 임시군사비에서 지급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었다. 통신기재는 육군성 경리부에서 지급하였으며, 체신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미 그 해 10월 9일 제19사단에 유무선 전신용 기재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주요 물품으로 통신차, 전주차, 증피복선(300km), 전력식 전화기, 인부용 전화기 등이었다.⁴⁵⁾ 통신기재 가운데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2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일본군은 원활한 통신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통신기재뿐만 아니라 전신

45)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上-3, 「通信器材支給ノ件」(146호, 1920년 10월 9일); 金正柱, 『朝鮮統治史料』2, 324~325쪽.

요원의 증가를 요청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유무선 통신 시설에 대한 중국 측의 간섭과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저항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⁴⁶⁾ 12월 말 근위사단장 후지이 코쓰치(藤井幸捷)가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에게 “이번 작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 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전신요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⁴⁷⁾ 이렇듯 일본 육군에서는 간도출병시에 전신요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서 특별경비를 책정하여 이들을 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비비의 지출을 부담하면서까지 진행된 전신요원의 증파는 당시 정확한 정보와 군대의 이동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⁴⁸⁾ 즉 육군성 지시와 조선군과 조선총독부 제국 협정 사이에 차이점이 생긴 것이다.

첫째 청진 이북 조선 내의 전신을 단선으로 하면 체신국의 작업력이 부족해서 그 결과 긴급을 요하는 선로의 완성이 늦어지고 추가로 체신국에 요구해야 함. 둘째 청진-무산선을 고무산-무산선으로 변경한 것은 지리상, 保線上 후자가 유리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의거함. 용정촌-두도구 사이의 전화선은 작업상 필요하므로 전신 통신원 부족 때문에 전화로 하고 복선으로 할 것⁴⁹⁾

이처럼 전신시설과 통신원은 육군성의 작전에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따라서 육군성이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통신원을 충원하고 통신 기자재를 증파하였던 것이다. 작전 범위도 넓었기 때문에 통신 관련 예산과 인력 및 기자재를 증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편으로 독립군들의 저항이 거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⁵⁰⁾ 특히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군용선과 체신국선의 혼선, 이주한인 교환수의

46) 당시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간도통신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군의 동태를 관찰하였다. 額穆縣에 통신 중앙기관을 두었으며 통신 중앙부장은 崔元一이었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 376~377쪽).

47)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 上-3, 285~286쪽. 「間島派遣中ノ技手ヲ歸還センメラレ度件上申」(제312호, 1920. 12. 25).

48) 제19사단 공병 작업에 소요된 금액은 총 4, 084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훈춘, 경원, 훈용간 건설비로 2, 911원, 회령-용정 간 254원, 용정-국자가 간 179원, 용정-두도구 간 247원, 두도구-동불사 간 493원이다(金正柱, 앞의 책, 326쪽). 이 가운데 훈춘과 경원지역은 국경선을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으며 특히 이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 접경 지역이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49) 김연옥 옮김, 앞의 책, 75~76쪽.

50) 최근에 제국주의 일본군의 간도침략 당시 한국독립군의 군사적 대응양태에 대해서는 신효승의 글이 주목된다. 신효승, 「청산리 전역시 일본군의 군사체계와 독립군의 대응」, 『학림』 37, 2016; 신효승, 「청산리 전역의 전개배경과 독립군의 작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 2016

정보 도청이라고 짐작하던 일제는 한인독립운동을 ‘특별’한 결과, 오히려 그들이 간도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화 교환수로 한인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기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⁵¹⁾ 일제로서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의 피해 사실을 한인의 기밀누설로 호도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 군대 출동에 수반되어 나타난 민간인 학살 역시 은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⁵²⁾

한편 육군성에서는 간도지역에 가설한 통신기관이 독립운동가 및 마적 등을 탄압하는데 유효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⁵³⁾ 간도 전 지역의 군용선 가설과 훈춘 지역 무선 전신은 ‘간도침략’ 작전에 필수적 수단이었으며, 일본군 철병 이후에도 통신선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육군성의 입장이었다. 무선통신소는 1920년 1월 26일 경성 육군 무선통신소를 개설하면서 시작하였다. 간도지역에 이동식 무선을 개설하기에 앞서 조선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야전 교통부와 협정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경성, 블라디보스토크-간도지역 교신 시간을 정하였다. 이동식 무선 전신요원과 기자재가 10월 19일 저녁 회령에 도착하였고 20일 무선대 편성을 마쳤다. 회령 및 훈춘에 통신소를 개설하였다. 이처럼 간도와 경성의 무선연락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계하였다. 11월 17일 훈춘 무선을 폐지하고 용정으로 이전하였다. 12월 3일에는 회령 무선을 폐지하고 19사단 사령부가 있는 나남으로 옮겼다.⁵⁴⁾

유무선 통신 활용으로 군사작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자평했지만⁵⁵⁾ 이 통신선은 1921년 간도지역에서 군 철병과 함께 몇 가지 갈등 양상이 표출되었다. 조선군은 총독부 체신국에 의탁하여 통신선을 활용했지만 군 작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큰 불편을 느꼈다고 주장했다.⁵⁶⁾ 또한 육군성에서는 외무성과 간도총영사관이 군용전선을 이용하여 업무연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19사단 참모장은 영사관의 관보취급을 아예 못하게 할 정도였다. 육군성에서는 외무성이 군용선을 이용하여 관보를 취급하면 간도지역에 출병한 일본군의 작전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⁷⁾ 이 문제는 당시 외무대신인 우치다 야스야(内田康哉)가

51)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上, 「鮮人電話手機密漏泄ノ件回答(朝參密제1110호)」.

52) 金正明, 『朝鮮獨立運動』3, 原書房, 376~377쪽.

53) 김정주, 앞의 책, 432쪽.

54) 김연옥 옮김, 앞의 책, 77~78쪽.

55) 김연옥 옮김, 위의 책, 172쪽.

56) 위의 책, 172쪽.

57)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上, 「間島地方軍用電信使用方ニ關スル件」(密제566호, 1920. 11. 18).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에게 외무성의 군용전선 사용방법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오히려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확대되었다.⁵⁸⁾ 왜냐하면 당시 일제는 용정-국자가-훈춘을 선으로 연결하였는데 훈춘과 국자가 군용 통신소에서의 전보취급이 3자간, 즉 육군성, 외무성, 조선총독부 간의 알력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육군성과 외무성의 전선 사용권 문제는 간도지역에서 그들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는 육군성이 설치한 군용선을 보수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는 양 기관의 이해에 따른 것으로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함경도와 대륙을 잇는 전신선을 구축하기 위함이었고, 육군성에서는 외무성과의 마찰을 피하고 군 작전에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체신국에 위탁한 군용통신망은 용정과 두도구에서 10월 8일로 가장 먼저 완료되었으며, 11월 1일에는 회령과 훈춘에서 완료되었다. 다음으로 11월 6일에 용정과 국자가에서 완료되었으며, 11월 28일에는 경원과 온성에서, 12월 12일에는 나남과 회령 간 전신선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통신선은 1921년 4월 제국주의 일본군대가 철병할 때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위탁했던 통신선은 19사단 공병단의 작업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⁵⁹⁾ 이처럼 제국주의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간도출병’을 단행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통신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독립운동의 열기를 차단하고 만주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것은 통신선 가설로 구체화 되었다.

IV. 대학살의 과정과 실상

1920년 10월 3일 육군대신 앞으로 한통의 전보가 도착하였다. 만주 일본거류민 회장 카도히로 켄키치(門廣健吉)가 보낸 전보였다. 그 내용은 “오늘 아침 마적과 불령선인, 러시아인 200명과 혼란을 일으킨 700명의 무리가 영사분관을 습격하여 소각하고 내국인 부녀자 10명이 살해되고”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3일부터 4일, 6일, 7일까지 훈춘영사분관 습격 소식이 연이어 보고되었다.⁶⁰⁾

58) 陸軍省, 『間島事件關係書類』上, 「間島地方軍用電線ノ使用方ニ關スル件」(1920년 11월 16일).

59) 김정주, 위의 책 2, 「간도파견대 철퇴에 관한 지시 송부의 건(1921년 4월 7일)」.

1920년 10월 6일 간도총영사 사카이(堺)는 간도 지역 ‘불령선인’이 극렬하게 활동한다고 하면서 일본 본국에 군대 출병을 요청하였다.⁶¹⁾ 오전 전보가 나남에 접수되자, 오후 2시에 회령에서 보병 2개 중대와 기병 일부가 용정촌을 향해 출발하였다.⁶²⁾ 군사작전이 일사분란하게 전개되어도 이러한 상황은 미리 짠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실행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제국주의 일본은 청진부에서 일본거류민을 추동하여 훈춘사건 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주된 내용은 훈춘사건이 전대미문의 추악한 사건이므로 이러한 사건의 주동자를 색출하여 실추된 ‘제국’의 이미지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⁶³⁾ 10월 7일 조선군사령관 오바 지로(大庭二郎)는 오전 2시 55분에 간도뿐만 아니라 온성을 비롯한 국경지역의 거류민 보호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전보를 육군대신 앞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당일 육군대신으로부터 조선군사령관에게 간도 방면의 “제국신민의 보호와 경비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과 공동작전 실행을 승낙한다”라며 ‘군대출병’을 공식 허가하였다.⁶⁴⁾ 또 바로 민을 동원하여 ‘군대출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10월 8일 회령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훈춘사건을 성토했고, ‘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⁵⁾ 또한 10월 15일 군사작전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北鮮 연합대회’를 개최하여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훈춘사건을 성토했다고 했다.⁶⁶⁾ 이른바 ‘군관민’의 합작품이 군대출병으로 표현되었다.

1920년 10월 10일, 조선군사령관 앞으로 본국에서 군대 출병 명령서가 하달되었다.⁶⁷⁾ 조선군사령관이 훈춘 및 간도 방면에 파견해야 할 병력은 보병 약 6대대, 기병 약 1중대, 산포 8문, 공병 2중대, 비행기 4대였다.⁶⁸⁾ 그리고 나남에 주둔했던 19

60)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2, 1970, 349쪽.

61) 중국 영토인 간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대 출병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1920년 5월부터 중국 군벌 張作霖과의 몇 차례 협상을 통해서 ‘출병’분위기를 다졌기 때문이다. 중국측과의 협상 과정은 김연옥, 「일본군의 ‘간대출병’ 전략과 실패-간대출병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0, 2019, 133~136쪽 참조.

62) 金正柱, 앞의 책, 352쪽.

63) 金正柱, 위의 책, 353쪽.

64) 金正柱, 위의 책, 354쪽.

65) 金正柱, 위의 책, 355~356쪽. 김연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다만 군대출병을 결정하였던 제국 일본 수뇌부인 수상 하라 다카시의 일기를 인용하여 ‘간대출병’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연옥, 앞의 글(2019), 139~140쪽).

66) 金正柱, 위의 책, 365~366쪽.

67) 金正柱, 위의 책, 362쪽.

사단장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1. 보병 제37여단장 히가시(東) 소장에게 함흥으로부터 보병 1대대(2중대 결여) 기관총 1소대를 나남으로 파견하게 하고 여단장은 소요기관을 따라 나남에 도달하게 함
2. 보병 제38여단장 이소바야시(磯林) 소장에게 10일 나남 출발, 훈춘에 도착하게 하여 해당 방면 전반의 지휘를 맡게 함.
3. 제20사단으로부터 증파된 보병 제78연대 제3대대를 이소바야시 소장의 지휘 하에 속하게 하고 9일 나남을 출발하여 회력을 거쳐 훈춘에 도착하게 함.
4. 보병 제76연대장 기무라(木村) 대좌에게 11일 나남 출발, 온성에 도착하여 다음의 부대를 지휘하고 대왕청 방면의 초토준비를 하게 함(하략).⁶⁹⁾

간도침략군(조선군,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관동군)⁷⁰⁾은 10월 13일 중국 측에서 정식으로 ‘간도출병’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 표현을 해 왔지만 이외는 별개로 출병을 선언하였다.⁷¹⁾ 그리고 본격적인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일본군의 자국 영토 침략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長沙 『大公報』 1920년 10월 28일자에 “중국 전 화국과 우체국을 점령하였으며, 비적들을 은닉하였다고 하면서 중국 관원들을 겁박하였다”라고 전했다.⁷²⁾ 11월 12일 『大公報』에도 “중국의 평민 또한 그 손해를 입었는데 일본 헌병이 곳곳을 수색하여 집에 있는 돈과 장신구 등을 강탈해 갔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인들은 억울하지만 굴욕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았다.⁷³⁾

이소바야시(磯林) 지대는 주로 훈춘과 왕청지역에서 독립군과의 전투 및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으며, 기무라(木村) 부대 역시 왕청의 하마탕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했다.⁷⁴⁾ 기무라 부대의 주된 목표는 대한군정서였다. 왕청현 서대파의 군정서 사관연성소 및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대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기무라 부대에서 자행된 제노사이드였다.⁷⁵⁾ 용정과 화룡 일대는 히가시 지대의 ‘군사작전’, 즉

68) 김연옥 옮김, 『간도출병사』, 경인출판사, 2019, 33쪽. ‘간도출병’ 당시 각 지대별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김연옥, 앞의 글 참조.

69) 김연옥 옮김, 『간도출병사』, 33~34쪽.

70) 필자는 이하 간도에 ‘출병’한 일본의 명칭을 ‘간도침략군’으로 칭하고자 한다. 다만 군의 특성상 각기 작전을 수행할 부대 단위의 때에는 고유한 사단 등의 명칭으로 서술하겠다.

71) 金正柱, 앞의 책, 364쪽.

72) 『大公報』 1920년 10월 28일, 「연길의 일본군대는 점점 흉악해지다」.

73) 『大公報』 1920년 11월 12일, 「일본군대가 연길에서 했던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

74) 김연옥, 앞의 글, 151쪽.

학살 무대였다. 특히 10월 30일 일어난 장암동(일명 노루바위굴) 학살은 간도침략군 입장에서도 11월 16일 발송된 [獐巖洞 附近의 討伐 情況(朝特報 제84호)]이라는 공문서를 간도출병사의 부록에서 다룰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⁷⁶⁾ 무엇보다도 선교사였던 푸트가 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중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獐岩洞에서 도적들의 사체를 불태울 때, (밀출 인용자) 연료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불에 타지 않은 것이 있었다. 다음날 31일이 일본 天长节였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불에 탄 것을 미처 다 보지 못했다. 만약 이것을 학살행위로 여긴다면 일본의 악명을 세계에 선전해야 할 것이다.⁷⁷⁾

청산리 전투가 끝난 시점이 10월 26일인데, 잔류한 간도침략군은 한국독립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상 구실을 내세워 한인마을을 초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간도침략군은 그들이 ‘간도출병’ 당시 수립했던 제1기(1개월) ‘불령선인단’을 초토화하고 제2기(잔여기간)에는 1기의 결과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하는 것이었는데, 간도지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살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이미 간도침략군이 ‘절멸 전쟁’을 구상하여 민간인까지 학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간도침략군 가운데 76연대가 자행한 학살의 희생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5) 신운용, 앞의 글, 56~57쪽.

76) 김연옥 옮김, 『간도출병사』, 323~329쪽. 간도침략군이 장암동에 도착한 시간은 31일 새벽이었으며, 국민회 지부를 ‘도발’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명의 한인들을 학살하였다. 침략군은 ‘불령선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을 진행하였다고 했다.

77) 『大公報』 1920년 12월 11일, 「일본군대가 간도에서 잔인한 행동을 한 자백서를 보시오」. 장암동 사건의 참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정촌 제창병원장(濟昌病院長) 영국령 캐나다인 마틴(閔山海) 및 중국 해관 고문 영국인 홉푸스는 11월 1일 장암촌에 이르러 실황을 시찰하고 동민에 대해 조위금 200원을 교부하고 돌아갔다(金正柱, 앞의 책, 461~462쪽). 북간도에 파견된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간도대학살을 해외에 알리는 데 집중하였다. 마틴의 경우에는 북간도 지역에서 자행되었던 일제의 만행상황을 캐나다 선교부에 전달하였다. 북간도 선교사들의 경신참변에서의 활동은 문백란, 「캐나다 선교사들의 북간도 한인사회 인식」, 『동방학지』 144, 2008 참조.

<표 3> 보병 76연대에 학살당한 한인 현황

연번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사유	연월일
1	최병우	50	연길현 삼도구	농업	불령단의 통신연락을 맡고 불령행위를 하다가 사살 당함	9.11.6
2	배승권	40	훈춘현 대호동	농업	대한독립단 재무원으로 활동(대호동에서 총살)	9.12.2
3	박중보	50	위와 같음	농업	대한독립단 재무원으로 활동(대호동에서 총살)	9.12.2
4	김병원	46	훈춘현 대하전	농업	대한독립단 부회장으로 활동(대하전에서 총살)	9.11.8
5	서재일	56	훈춘현 대하전	농업	대한독립단 외교부부장으로 활동(대하전에서 총살)	9.11.8
6	김진현	32	훈춘현 소하전	농업	대한독립단 재무원으로 활동(대하전에서 총살)	9.11.8
7	김경근	35	훈춘현 대하전	농업	대한독립단 평의원으로 활동(대하전에서 총살)	9.11.8
8	방서일	41	훈춘현 하구동	무직	대한독립 군자금에 강요하였음(하구동에서 총살)	9.11.3
9	이홍윤	65	위와 같음	농업	위와 같음	9.11.3
10	김명진	52	훈춘현 작개동	농업	대한독립을 선전함(작개동에서 총살)	9.11.3
11	한규량	55	훈춘현 상의사 회룡봉	농업	불령선인 영수로 11월 2일 월강, 회룡봉 부근에서 토벌대와 조우하여 체포되어 귀영하는 도중 오후 7시 30분 경 흑정자 금당촌 중간에서 야간 암행 도주하는 것을 사살	9.11.2
12	박형규	37	위와 같음	농업	위와 같음	9.11.2
13	박인권	28	위와 같음	교사, 약상	위와 같음	9.11.2
14	김승세	28	위와 같음	교사	위와 같음	9.11.2
15	김용연	41	위와 같음	농업	위와 같음	9.11.2
16	김정규	28	위와 같음	농업	위와 같음	9.11.2
17	김홍석	29		교사	위와 같음	9.11.2
18	정길순	65	훈춘현 정죽동	농업	오가자 부근 출동 토벌 중 체포되어 구사평에서 대안에 이르렀을 때 야음을 틈타 도주하는 것을 추격 사살하였음	9.11.4
19	김태준	46	오도포자	농업	위와 같음	9.11.4
20	김입범	39	십리평	농업	불령단에 소속되어 양식의 공급 및 가옥건설에 종사하고 첩보 근무에 복무하다가 사살됨	9.11.4
21	김도화	47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2	김병우	28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연번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사유	연월일
23	엄주현	27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4	최준천	57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5	신손락	30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6	윤재원	46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7	신순수	38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8	신태근	39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29	하순규	41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0	김성환	29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1	조사원	27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2	원재용	37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3	한재원	26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4	최일원	24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5	이경적	30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6	한이순	41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7	한수석	18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8	방인수	50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39	신태영	31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0	한순규	40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1	최학천	42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2	최학순	28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3	신순호	30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4	조달원	19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5	장사천	21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6	박팔봉	30	십리평	농업	위와 같음	9.11.4
47	지창린	48	양수천자	농업	불령단에 투신하여 통산업무 및 군자금 모금에 종사하였음. 또한 첩보활동에도 복무함. 십리평에서 총살	9.10.22
48	지인도	35	양수천자	농업	위와 같음	9.10.22
49	지승수	18	석두하자	농업	위와 같음	9.10.22
50	채남섭	45	신촌평	농업	내정조사에 의하면 불령단에 투신한 자임. 석두하자에서 총살	9.10.22
51	김원삼	48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2	김기봉	42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3	이경원	47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4	송화여	51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5	김천사	18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6	유치순	33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7	이영학	53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8	김성인	37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59	최군석	54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연번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사유	연월일
60	이성실	28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61	이춘실	31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62	한현백	48	신촌평	농업	위와 같음	9.10.22
63	박영훈	35	대왕청	농업	내정조사에 의하면 불령단에 투신한 자임(왕청 산중에서 총살)	9.10.25
64	최치삼	39	대왕청	농업	위와 같음	9.10.25
65	나순호	19	대왕청	농업	내정조사에 의하면 불령단에 투신한 자임(대토천자에서 총살)	9.10.25
66	나순익	21	대왕청	농업	위와 같음	9.10.25
67	박규호	43	대토천자	농업	위와 같음	9.10.25
68	한춘삼	38	대왕청	농업	내정조사에 의하면 불령단에 투신한 자임(대감자에서 총살)	9.10.25
69	김병길	23	대왕청	농업	위와 같음	9.10.25
70	김봉준	28	대감자	농업	위와 같음	9.10.25
71	김용국	35	대감자	농업	위와 같음	9.10.25
72	김성극	39	합마당	농업	내정조사에 의하면 불령단에 투신한 자임(합마당에서 총살)	9.10.27
73	한연하	43	합마당	농업	위와 같음	9.10.27
74	박성락	26	합마당	농업	위와 같음	9.10.27
75	정금용	32	황구구자	농업	내정조사에 의하면 불령단에 투신한 자임(황구구자에서 총살)	9.10.27
76	정봉익	28	황구구자	농업	위와 같음	9.10.27
77	윤의록	54	황구구자	농업	불령단 양성소를 설립하여 배일사상을 선전함. 또한 불령단에 투신하였음(왕청에서 총살)	9.10.30
78	오병목	42	황구구자	농업	위와 같음	9.10.30
79	양도명	40	황구구자	농업	위와 같음	9.10.30
80	이국화	43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1	이일재	42	북일양구	농업	국민회원으로 기부금 모집에 종사하였으며, 통신첩보 근무도 하였음(북일양구에서 총살)	9.11.3
82	이명초	35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3	이종란	19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4	이종눌	47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5	이여익	29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6	이여일	47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7	이여락	44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8	이여국	27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89	이병재	44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90	허익	63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3
91	최병우	45 (?)	불명	불명	국민회원으로 기부금 모집에 종사하였으며, 통신첩보 근무도 하였음(일양구에서 총살)	9.11.5

연번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사유	연월일
92	최우익	49	불명	의군단총무	독립가옥에 있었으며, 아군을 보자마자 도주(일양구에서 총살)	9.11.5
93	이을	35	불명	의군단 서무부장	위와 같음	9.11.5
94	홍정필	40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95	불명	23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96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97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98	불명	26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99	불명	26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100	불명	28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101	불명	22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1.5
102	노간선	49	북일양구	농업	의군단 산포대의 수령으로 독립운동에 관여함(팔도구에서 총살)	9.11.6
103	박창렬	35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6
104	이동수	20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6
105	신재섭	25	북일양구	농업	위와 같음	9.11.6
106	이경찬	35	팔도구	농업	위와 같음	9.11.8
107	이원일	45	백초구	농업	불명단에 속하였고 조선 내에 잠입하여 강도적 군사금을 모집(백초구에서 총살)	9.12.1
108	이영무	37	불명	불명	우리군을 보자마자 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왕청에서 총살)	9.12.17
109	이학성	28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2.17
110	불명	27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2.17
111	이석명	26	중경리	불명	군정서에 속한 불령조선인(왕청현에서 부상)	9.12.17
112	불명	25(?)	불명	불명	무장을 한 조선인으로 일본군과 전투 결과 전사	9.10.20
113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0.20
114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0.20
115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0.20
116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0.20
117	불명	25(?)	불명	불명	위와 같음	9.10.20
					死 136명, 부상 1명	합계

*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2, 390~397쪽. ** 연월일은 일본 연호인 다이쇼(大正) 9년(1920)으로 표기.

위의 <표-3>과 김정주 『朝鮮統治史料』 2의 한인학살과 중국 학살 숫자를 합치면 1, 058명이다.⁷⁸⁾ 그 가운데 한인은 1, 041명이며 중국인은 17명이 학살당했다. 『獨立新聞』 1920년 12월 18일자에는 한인 총 3, 469명이 학살당했다고 했다.⁷⁹⁾ 청산리

78)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2, 398~403쪽.

에서만 409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 언론 가운데 대공보는 1920년 11월까지 300여 명이 학살되었다고 했으며, 만주지역에서 발행한 언론에는 약 2, 000명의 한인이 학살되었다고 나와 있다.⁸⁰⁾ 간도대학살 숫자를 자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일본군의 한인 학살 현황

자료	독립신문	육군성문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길정일보
학살 수	3, 469명	1, 041명	3, 106명	2, 000여 명

* 『독립신문』 1920년 12월 18일자;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2, 390~403쪽; 『길정일보』는 김춘선, 앞의 책, 513쪽 재인용.

간도침략군의 학살은 중국 지방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였다. 길림성장도 애초 1920년 5월부터 중 일간 협상을 통해서 이른바 한국의 독립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간도침략군이 이주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학살하였으니 심각한 약속위반이라는 의견을 11월 4일 봉천총영사 아카즈카 [赤塚]에게 보냈다. 그 공식 문서를 잠시 보겠다.

근래 일본 군대의 행동은 오로지 각 지방에 산재하는 조선인 (불명) 수사와 체포를 성사하기 위해 무고한 조선인 또는 지나인을 연루자로서 살상하거나 혹은 가옥을 태워버리는 일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동 토벌의 약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해당 지방의 인민 또는 관현으로부터 매일 수통의 전보가 도착하여 고충을 말하니, 그 심각함에 이르러서는 본건 공동 토벌에 동의한 장 순열사 및 본인(포; 鮑)을 공격하는 인쇄물이 각지에 살포되어 지금에는 점점 여론이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달하는데, 도저히 이를 억압할 수 없다.⁸¹⁾

간도침략군은 자신들의 학살행위가 이주 한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음을 인지하였다. 예컨대 연길현 지인항 와룡동 등 한인 마을에서는 “국자가 병참을 축하드립니다. 사령부 만세”라는 현수막을 내걸 정도였다. 이에 대해서 간도침략군은 “우리 군대가 각지에서 토벌수사를 위해 방화, 살상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애원적 의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해당 지방 작금에 있어서

79) 『獨立新聞』 1920년 12월 18일, 서북간도 동포의 狀.

80)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513쪽.

81) 金正柱, 앞의 책, 408쪽.

민심의 이면을 살핌에 만족한 것이라고 인정한다”⁸²⁾라고 자평하였다.

경신년 간도대학살이 자행되었을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증강이라는 점이다. 1920년 10월 12일 이후 동월 31일까지의 경찰관 출동 횟수 및 그 성적 등을 조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대학살 시기 일제 경찰관 출동 횟수

경찰서별	출동 월일	철수 월일	출동 인원	출동지명	성적				
					敵死	傷	체포	가옥소각	노획품
삼장	10.19	10.19	3	농사동					
삼장	10.28	10.29	2	석인구					
무산	10.12	10.15	12	유동			2	19	
무산	10.14	10.14	6	남평			6		
무산	10.17	10.17	7	부동					장총2
무산	10.20	10.20	6	청산리					
무산	10.27	10.28	3	석인구				12	
무산	10.29	10.29	2	석인구					
무산	10.31	11.1	9	유동				5	권총1
회령	10.19	10.19	10	학동	14				권총 25, 소총1, 탄환 5, 나팔 1, 불온문서 다수
회령	10.23	10.23	15	서래동	9			6	
회령	10.27	10.27	5	사대사	10	1		5	
회령	10.28	10.28	2	석인구					
회령	10.30	10.30	15	석인구					
종성	10.19	10.19	17	화전사	5				권총1, 동실포10, 현금 5원 20전, 시계1, 불온문서 잡품 다수
종성	10.21	10.21	12	석봉동	8				탄약, 화분, 화약, 불온문서 약간
종성	10.25	10.25	14	서산등포	3		1		모자, 외투, 기타 잡품 약간
종성	10.28	10.28	13	마패	5	1			
은성	10.30	10.30	4	석두하자					
은성	10.29	10.30	5	대안					
훈용	10.25	10.25	9	홍인향	5				
훈용	10.30	10.30	11	고성패	3				
훈용	10.30	10.30	2	삼마동	2				
경원	10.25	10.25	11	고력역	2				
경원	10.29	10, 29	2	송화동					러시아식 소총2
신아산	10.19	10.19	3	소호동					

82) 金正柱, 위의 책, 407쪽.

경찰서별	출동 월일	철수 월일	출동 인원	출동지명	성적				
					敵死	傷	체포	가옥소각	노획품
신아산	10.29	10.29	3	소호동					
경흥	10.17	10.17	6	연화동					소총 4, 탄환 22
계			207		67	2	26	47	

* 김정주, 『朝鮮統治史料』 2, 426~428쪽을 참조하여 작성함.

경찰의 총 출동 횟수는 28차례였으며, 동원된 인원은 207명이었다. 함경북도 국경지방 경찰들로 구성된 경찰 간도파견대의 성과는 군대가 해야 할 전투를 치루었다는 데 있었다. 위의 표에 ‘적사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67명의 한인을 사살한 것이다. 그 외 가옥 47채도 소각하였으며, 소총 10, 권총 30, 나팔 1, 소총 실탄 27, 권총 실탄 10, 현금 5원 20전, 시계 1개 등을 노획하였다.

제국주의 일본은 대학살을 자행한 이후, 경찰력을 존치하기 위해 간도총영사관 영사 경찰의 증설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어서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 간에는 경찰 인원을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했다. 일제는 원칙상 먼저 현 영사관 경찰과 조선총독부 지원경찰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새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칙 하에서 각 기관이 각자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1920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에서는 경찰기구 수는 26개이며 경찰인원은 1,060명으로 결정했다.⁸³⁾ 그로부터 8일 뒤 일본외무성에서는 원래의 8개 경찰소에 두 곳을 추가하는 10개 증설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외무성과 조선총독부에서 협상을 거쳐 14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경찰관 90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⁴⁾ 그 외에도 경찰분서 18개소, 경찰인원 1,024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경찰력의 잔존은 대학살 이후 군대 철병으로 생긴 간도지역 일본 치안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을 것이다.⁸⁵⁾ 하지만 조선총독부 소속 경찰은 간도지역 동쪽 학살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사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83) 『外務省警察史』 21, 不二出版, 1998, 115쪽.

84) 『外務省警察史』 21, 84쪽.

85) 추후 확보된 조선인 경찰들의 ‘공적서’를 분석하여 ‘以韓制韓’ 정책과 간도 제노사이드의 또 다른 실상을 규명하려고 한다.

V. 맺음말: 경신참변은 제노사이드이다

이 글에서는 간도참변 또는 경신참변이 왜 제노사이드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려고 했다. 일제는 근대파견과 함께 학살의 빠른 진행을 위해 통신선을 확보해야 했다. 근대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행위는 본질적으로 통신의 신속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제는 간도라는 특수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잠재적인 저항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인사회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력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었다. 즉 독립운동가의 체포 및 취조를 위해 신속함이 필수인 통신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였다.

일제가 간도지역에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은 그들의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완비하였던 것이지, 결코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한인의 생활 편의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가 통신체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대륙에 대한 탐지였다. 예를 들면, 간도임시파출소 설치 이후 한인의 호구 조사 및 간도 지역 산업조사를 위하여 전신·전화선을 가설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간도출병' 때에는 노골적으로 통신선을 가설하거나 중국인 통신선에 첩설하는 방법으로 학살의 공간적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근대 통신시스템을 완비한 일본군은 '불령선인 토벌'이라는 미명 하에 간도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학살을 자행하였다. 일본군은 집단의 사회적 파괴자로서 한인사회를 유린하였다. 근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전시 상황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능하다. 일본군대가 중국 영토에 침입하기 위해 1920년 5월부터 꾸준히 지방군벌인 張作霖을 회유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중국 북경정부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20년 10월 훈춘사건은 보다 완전하게 만주를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며, 그 목적은 한인 학살이었다. 개인 학살이 아닌 한인 사회를 파괴하고자 함이었다. 파괴 이후에도 일제는 이를 희석하기 위해 '귀순'이라는 회유정책과 학살의 주체인 육군성을 통해 한인사회에 10만원을 지원한다고 선전할 정도였다.

따라서 간도지역의 한인대학살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미리 고안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근대 국가의 관료주의,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국가권력의 급속한 팽창이 결합되어 '타락한 전쟁'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간도지역 한인사회를 파괴하는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제노사이드는 전쟁을 전제조건으로 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20년 간도지역에 정규군이었던 일본군은 비정규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타국 영토를 침략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대량학살이 발생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제노사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절멸’이 개인의 존엄과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향유했던 공동체의 기반, 정신세계, 민족감정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때 비로소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일본군이 1920년 서간도, 북간도지역 한인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경신년 간도(한인)대학살’로 증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1920년 간도지역에서 제국주의 일본군대의 한인사회에 대한 ‘절멸전쟁’은 제노사이드이며, 이에 대하여 유엔이 정한 [제노사이드 범조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현재적 적용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간도 한인대학살 100년이 되는 현 시점에 역사의 수면 위에서 간도 대학살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무수히 자행되었던 국가 간의 타락한 폭력과 전쟁의 ‘도돌이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논의 자체가 큰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가해 당사자는 비난받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논의는 동북아시아 평화지대 구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獨立新聞』, 『대공보』
『外務省警察史』 21, 不二出版, 1998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3 (영인본; 고려서림, 1989)
金正柱, 1970, 『朝鮮統治史料』 2 韓國史料研究所
金泰國, 2002, 『滿洲地域 ‘朝鮮人 民會’ 研究』, 國民大 博士學位論文
김상태, 2019, 「3.1운동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탄압-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29
김연옥, 2019, 「일본군의 ‘간도출병’ 전략과 실태-간도출병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 역사연구』 50
김주용, 2008, 『일제의 간도 경제침략과 한인사회』, 선인
김춘선, 2000, 「경신참변연구」,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_____, 2016,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문백란, 2008, 「캐나다 선교사들의 북간도 한인사회 인식」, 『동방학지』 144
宇都宮太郎關係資料研究會 編, 2007, 『陸軍大將宇都宮太郎 日記』 3, 岩波書店
陸軍省, 1920, 『間島事件關係書類』 上, 「間島事件ニ關スル朝鮮軍參謀指示事項」
이범석, 1971, 『우등불』, 사상사
정예지, 2011, 「庚申慘變기 조선인 “귀순”문제 연구-북간도를 중심으로-」, 『사림』 38, 수선사학회
조원기, 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許壽童, 2010, 「關於 “間島慘變”研究與紀念問題」, 『만주연구』 10

투고일 : 2021년 03월 13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4월 2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4월 23일

■ Abstract ■

Imperial Japanese Invasion of Kando and The Massacre of Koreans : Cover-up and control

Kim Jooyong (Wonkwang University)

In the 20th century, humankind attempted massive annihilations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during wars. The scale and the intensity of these annihilations increased as countries and scientists developed weapons explicitly created for mass murder. Genocide of this nature remains a present and historical problem that challenges human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phenomenon by investigating its expressed practice and Imperial Japanese soldiers' attempts to massacre Koreans in the Kando region throughout October 1920.

The research exposes a need to evaluate the brutal history of Japanese troops dispatched to Kando under the guise of protecting Japanese citizens but embarking instead on a collective effort to massacre migrant Koreans living in the area. This research presents verifiable evidence that Imperial Japan partook in Koreans' physical and mental persecution in the region before eventually killing them. It call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evaluate the 'Kando Genocide' as a historical massacre that broke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egulatory standards, and an incident that has long gone un-recorded or overlooked in history.

Key words: Kando, Genocide, Imperial Japan, Battle of Cheongsan-ri, Korean Police